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김 이 지 정 신 영 김 지 애 김 지 윤 이 동 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역할을 검증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있어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하위요인인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 회피형 대처전략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전체모형 검증결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세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 회피형 대처전략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었지만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수준 간에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성별에 따른 모형검증 결과, 여성 집단은 전체집단과 동일하게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과 회피형 대처전략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남성 집단은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만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없었다. 셋째, 학년별 모형검증 결과, 저학년 집단은 전체집단과 동일하게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과 회피형 대처전략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고학년 집단은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없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대처전략(문제해결중심, 사회적 지지추구, 회피형),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매개효과, 진로결정수준

* 본 연구는 2011학년도 1학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 상담심리연구실습 수업(담당 및 지도교수: 이동귀)에서 이루어졌음. 아울러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BK21 인지 및 심리학과 전문인력양성 및 실용화 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이동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62
Tel : 02-2123-2437, E-mail : lee82@yonsei.ac.kr.

대학생 시기는 학교에서 직업 세계로 이행하는 준비단계로,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알맞은 직업을 결정하기 위한 탐색의 시기이다(이학주, 이기학, 2000).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Harre & Lamb, 1983), 이는 직업과 진로가 인간관계,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의 가치관, 능력 발휘의 기회, 거주지 결정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으로써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Tolbert, 1980).

그러나 이러한 진로결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 입시 위주의 진로지도로 받으며, 자신의 가치관이나 적성, 진로 등의 문제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진로 및 직업 문제에 대해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여러 대학들이 실시한 학교생활 실태조사에서도 대학생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 및 직업선택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김봉환, 2007). 대학생들의 진로미결정은 정체감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며, 진로미결정 상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압박감, 불안, 혼란 등과 같은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초래하고 진로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박선희, 박현주, 2009). 또한, 최근 여러 대학에서 시행하는 학부제, 복수 전공제와 같은 학문의 분화와 통합현상,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기회의 감소는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대한 고민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백지숙, 2006), 이러한 발달적,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대학생의 효과적인 진로계획 수립 및 진로스트레스를 보다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 등의 연구분야에서 진로결정수준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오고 있다(Slancy, 1988; Winer, 199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적응수준을 예측해 주는 중요한 변수로 진로 미결정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취업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김은진, 천성문, 2001). 진로결정수준이란 진학, 취업 등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확신하는 정도로(고향자, 1992), 진로 미결정과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봉환, 1997). 이러한 진로결정수준은 그동안 진로의사결정(고향자, 1992),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김희수, 2005), 자아정체성(박정희, 이은희, 2008), 진로 정체감(김봉환, 1997), 가족관계(박수길, 2001),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성식, 2007) 등의 변인과 함께 진로상담 및 진로 지도 분야에서 학문적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진로결정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의 인지적 의사결정 과정과 태도에 관련된 변인 위주로 치우쳐 진행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진로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진로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개인의 행동 변인을 소홀히 다루어 왔다(김봉환, 김계현, 1997). 실제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진로결정을 위해서는 진로 성숙도나 진로정체감 등 인지나 태도적인 측면만을 향상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유나현, 이기학, 2009), 스트레스 상황 자체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용하는 개인의 대처행동 혹은 대처전략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더 중요하다. 직업정보를 탐색한다거나, 관심있는

분야의 종사자와 만나는 기회를 마련한다거나, 구직활동에 필요한 사전 연습을 해보는 것 등 진로에 관련한 준비 및 실천행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김봉환, 김계현, 1997). 부적응의 직접적인 원인은 스트레스 그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라는 견해(Lazarus & Cohen, 1977)가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입증 되었다(Brissette, Scheier, & Carver, 2002; Chang & Strunk, 1999; 신현숙, 2005; 주현숙, 방희정, 2006).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며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반응하는 능동적 존재이므로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어떤 사람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로 인식되지 않기도 하다(Lazarus & Folkman, 1984). 이를 진로결정장면에 대입해 보면, 비슷한 강도의 진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개인이 어떠한 행동적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강희순, 2010).

한편, 대처(coping)는 문제상황 및 스트레스에 대해 인간이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으로 특히 개인의 자원을 약화시키거나 능력범위를 초과하는 개인 내적·외적 요구들을 다루려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대처는 정서중심적 대처방식과 문제해결중심적 대처방식으로 분류된다(Folkman & Lazarus, 1985). 이중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은 인지적 재구조화, 최소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유머, 주변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술이나 약물 등을 통해 회피하기 등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고, 문제해결중심적 대처방식은 인지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정보수집, 시간관리, 목표설정 등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

다(Biggam, Power, & Macdonald, 1997). 기존의 연구에서 회피적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고, 이러한 대처를 많이 할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지만(변은주, 1999), 이와 같은 연구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적극적 대처(문제해결중심), 소극적 대처(정서중심)와 같은 이분법적 분류기준을 사용하였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대처전략을 2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개인의 다양한 대처기제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경험적으로 수집된 대처전략을 다양한 집단에 적용하여 표준화한 대처전략지표(Coping Strategy Indicator: CSI)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CSI는 대처방식을 문제해결중심 대처, 회피형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의 세 가지 전략으로 구분하고 있는데(Amirkhan, 1990),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미국의 대학생들과 동일한 3요인 구조가 타당함이 밝혀졌다(신혜진, 김창대, 2002). 또한 CSI 3요인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수준 간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에서 문제해결중심대처와 진로결정수준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흥미와 적성, 가치관 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문제해결중심적 대처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더욱 효과적임을 의미한다(박선희, 박현주, 2009). 반면에 회피형 대처와 진로결정수준은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거리두기, 철회와 같은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Argyropoulou, Sidiropoulou-Dimakakou, & Besevegis, 2007). 최근 연구에서 CSI 3요인 중

문제해결중심적 대처와 회피형 대처와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 지지 추구하고 진로결정수준 간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박선희, 박현주, 2009)가 있는 반면,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 지지추구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보고도 있어(Argyropoulou et al., 2007) 대처전략과 진로결정 수준 간 제3의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대처전략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제 3의 변인이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고, 이러한 매개변인을 확인하는 일은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내담자를 상담할 때 개입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러 진로이론 중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은 개인의 심리적 요소와 환경적 맥락 등이 어떻게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개인의 인지적 요소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을 포함한 진로성숙태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으로 제시하고 있다(이기학, 이학주, 2000; 이상희, 2005; 이은경, 이혜성, 2002; 조아미, 2000). 여기에서

말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 및 진로 목표성취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Taylor & Betz, 1983), 앞으로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직업적 능력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며,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근거한 개념이다(김영경, 2008). 자기효능감은 일상생활사건과 자기 자신의 기능수준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Bandura, 1986)이며, 어떠한 문제나 과제에 직면하였을 때에 선택 가능한 대안이나 문제해결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의 행동을 설명하는 강력한 변인 중 하나이기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 즉 진로에 대한 목표 선택과 성취로 이행되는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입장을 보면, 개인이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직업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며(Tracey, 2010), 진로에 대한 목표수립과 진로계획수립이 용이하게 되고(Rogers, Creed & Glendon, 2008), 결과적으로 진로선택과정이 촉진된다(Lent, Brown, & Hackett, 2000). 이러한 견해는 여러 연구자(예, Hackett & Betz, 1981; Taylor & Betz, 1983)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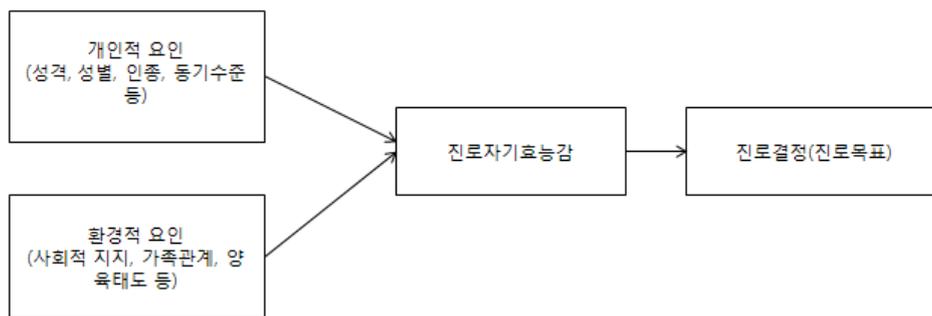


그림 1.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Lent et al., 1994)

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은 개인의 흥미와 적성, 가치관 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도록 도와 진로를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선희, 박현주 2009), 따라서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을 통한 수행성취 경험이 진로결정 과제에서 자신의 과제수행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여주게 되고, 이것이 진로결정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요컨대, 특정 상황에 대한 대처전략이 효율적이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으며 이는 진로결정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매개모형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연구를 살펴보면 문제해결중심 대처와 자기효능감과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보고되었지만(김희수, 2000; 하동희, 2005), 정서중심 대처는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이 없거나(탁진국, 한덕웅, 1993; 김희수, 2000, 하동희, 2005), 부적 상관을 보이는 등(문양호, 김완일, 2006) 선행연구들간에 비일관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대처방식을 설명하는 선행 이론가들의 상이한 주장과도 연결 지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적 대처이론가들은 문제해결중심 대처가 정서중심 대처에 비해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Folkman & Lazarus, 1980). 반면에 인지현상론적 관점에서는 어떤 전략도 다른 것보다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즉, 동기화의 초점이 문제지향적이거나 정서지향적인 차이가 있을 뿐, 회피하지 않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유사한 것으로 간주한다(김정희, 1987).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서중심 대처를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와 회피형 대처로 세분화한 대처 전략 검사지(Coping Strategy Indicator: CSI)를 사용하고자 한다. 즉, 대처 전략을 3요인(문제해결중심 대처, 회피형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으로 구분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처방식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본 연구는 있었으나 사회인지진로모델에 기초하여 이들 세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과거 수행이나 성공경험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하는 대처전략이 달라지면 진로결정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근거로 대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갈등을 겪게 될 때 사용하는 상황 특정한 대처전략(situation-specific coping strategy)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진로결정장면의 예측변인들이 주로 인지적 개념들에 치우쳤던 선행연구들의 취약점을 행동적 요소가 포함된 대처방식을 측정함으로써 보완하고, 동시에 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들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혹자는 대처전략,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으로 이어지는 매개모형에 대한 반론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으면 효율적인 대처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것이 진로결정수준을 높

일 수 있기 때문에 대처전략이 매개변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대안모형에 대해서도 검증할 것이다. 그러나 Heppner, Pretorius, Wei, Lee 및 Wang(2002)의 연구결과를 보면,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서 문제상황을 회피하고 이것이 심리적인 부적응을 낳는 것이 아니라 문제상황을 회피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심리적인 부적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주 가설모형으로 대처전략,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상징하고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위치를 바꾼 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상징한다. 아울러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계획수립 효능감, 자기평가 효능감, 목표선택 효능감 등의 차이를 보였고(김선남, 정현욱, 2005), 남자 대학생은 미래의 직업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여자 대학생보다 높았으며(김정은, 2007), 학년 변인이 진로준비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들(김봉환, 1997; 이계경, 1997)에 근거하여 본 연구

에서는 대학생의 성별(남, 녀) 및 학년(고학년 대 저학년)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학년과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1, 2학년을 저학년 3, 4학년을 고학년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개발준비도가 높아지고(임언, 이지영, 윤희한, 2004),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기가 대학 3, 4학년 때부터이며,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를 3학년 부터라고 한 선행 연구(박경, 임경화, 1998)에 근거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이 흔히 경험하는 스트레스인 진로문제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처방식 중 과연 어떠한 전략을 사용할 때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최적의 대처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의 신념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다면 진로결정수준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가설 및 탐색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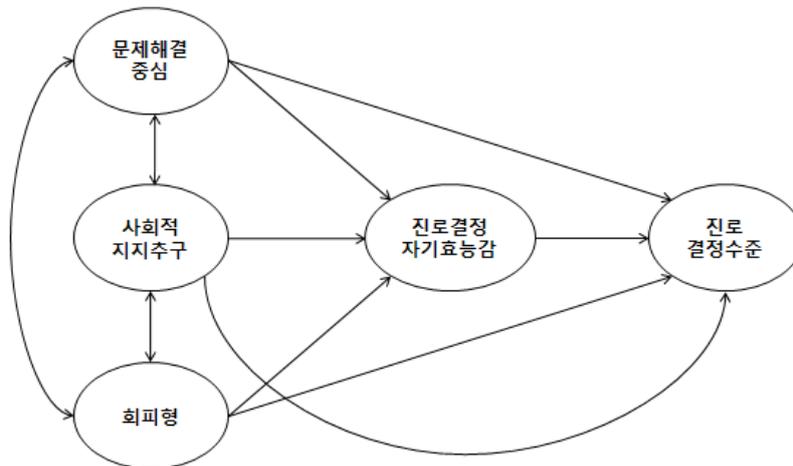


그림 2.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근거한 본 연구의 주 가설모형

가설 1. 대처전략은 진로결정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 1-1.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은 진로결정수준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 1-2.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은 진로결정수준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 1-3. 회피형 대처전략은 진로결정수준과 부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 3.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대처전략들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할 것이다.

탐색적 연구문제 1.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들이 소속된 대학의 학과연구심의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서울과 지방에 위치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168명(남 50명, 여 118명)의 온라인 설문결과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85세($SD=3.51$)였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 32명(18.8%), 2학년 38명(22.4%), 3학년 44명(25.9%), 4학년 54명(31.8%)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통계처리를 위해 응답하게 되는 인구학적 질문과 변인 측정도구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 전 과정은 학과연구심의위원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 졌다.

측정도구

진로결정 갈등상황 제시문

이 시나리오(부록 참조)는 대학생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진로결정 갈등상황을 담고 있으며 대학생 11명을 대상으로 내용의 적절성 및 애매한 표현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최종 시나리오를 확정하였다. 그 후 이 시나리오가 진로결정 갈등상황을 얼마나 잘 대변하는지를 확인확인하기 위하여, 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 수료자 3명에게 7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 척도상의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상황을 잘 나타내며 갈등의 강도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상담 관련 전문가들은 이 시나리오가 갈등상황을 나타내는 데 보통 이상으로 적절하며($M=6.67, SD=.58$), 갈등의 정도도 꽤 강하다고 답하였다($M=5.67, SD=.58$). 따라서 본 시나리오의 내용 타당도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전략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Amirkhan(1990)의 대처전략질문지(Coping strategy Indicator, CSI)를 신혜진과 김창대(2002)가 번안하여 타당화 작업을 거친 한국판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지(K-CSI)를 사용하였다. 총 33문항으로 문제해결중심, 회피형, 사회적 지지추구의 세 하위 척도로 나누어지며, 각각 11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리커트식 3점 척도(1=전혀 하지 않았음, 2=조금 했음, 3=많이 했음)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신혜진과 김창대(2002)의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합치도(이하 α 계수)는 .85로 나타났고, 하위척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각각 .90(문제해결중심 대처), .88(회피형 대처), .67(사회적지지 추구)였다. 본 연구에

서는 .90(문제해결중심 대처), .70(회피형 대처), .80(사회적지지 추구)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세 하위요인인 문제해결중심, 회피형, 사회적 지지 추구를 각각의 단일 요인으로 나누어 모형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진 잠재변수들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측정하기 위해 문항꾸러미(item parcel)를 구성하여 측정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때 문항꾸러미를 설정하기 위해 각각 11문항으로 이루어진 세 하위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후, 문항들이 가진 요인부하량에 대한 순위를 부여하고 각각의 꾸러미가 동일한 부하량을 가질 수 있도록 문항들을 배분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cale; CDMSES)의 단축형인 CDMSES-SF(Betz, Klein, & Taylor, 1996)를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대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CDMSES-SF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 등 총 25개 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로, (0=전혀 할 수 없다 9=매우 자신있다)까지의 9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의 범위는 .73~.83이며, 전체 α 계수는 .94였다. 이기학과 이학주(2000)의 연구에서 CDMSES-SF의 전체 α 계수는 .92였으며, 하위 요인의 α 계수는 .76(자기평가), .68(직업정보), .75(목표설정), .79(미래계획), .70(문제해결)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상 하위척도 점수대신 총점을 사용하였고 총점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Osipow, Carney, Winer, Yanico 및 Koschier(1976)의 진로결정수준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향자(199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 결정정도를 측정하는 4점 리커트식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아주 그렇다)의 자기보고식 18문항과 자유반응형 1개 모두 1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는 3-18문항, 총 16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변인이 진로결정수준임을 고려하여, 부정적인 문항으로 이루어진 모 척도의 점수를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사용하였다. Osipow등(197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2주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90 및 .82로 보고하였다. 고향자(199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α 계수는 .86, 반분신뢰도는 .79 등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7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참가자들은 제시된 갈등 시나리오를 읽고, 대처전략질문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검사, 진로결정수준검사에 차례로 응답하였다.

자료분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 대처전략 세 하위요인(문제해결중심, 회피형, 사회적 지지추구)에 따라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지를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모형 검증을 위해 먼저 SPSS 15.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후 AMOS 5.0을 이용하여 대처전략 세 하위요인,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때, 자료가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각 변수의 왜도(skewness)와 첨도값(kurtoss)이 각각 절대값 2와 4를 넘지 않아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함께 살펴보았으며,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1982, 1986)의 Z 공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성차와 고/저학년 집단에 따른 각 변인 간의 관계 모형 및 경로계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

(multi-group analysis)을 통해 성별, 고/저학년 집단의 구조모형을 비교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결과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대처전략들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진로결정수준은 회피형 대처와는 부적인 상관($r=-.24, p<.01$), 사회적 지지추구($r=.16, p<.05$)와 문제해결중심($r=.31, p<.01$) 대처전략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높은 진로결정수준과 관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1-1, 1-2, 1-3은 모두 지지되었다. 대처전략들 간의 관계를 살

표 1-1. 측정변인들의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1. 문제해결중심 대처	-				
2.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26**	-			
3. 회피형 대처	-.09	-.06	-		
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51**	.18*	-.25**	-	
5. 진로결정수준	.31**	.16*	-.24**	.45**	-
M(SD)	25.70(4.65)	25.38(4.06)	17.52(3.57)	146.30(32.99)	58.12(8.79)
최소값	11	11	10	8	32
최대값	33	33	30	212	80

주. 1, 2, 3=각각 1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식 3점 척도로 표시(각각의 총점=33점); 4=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식 9점 척도로 표시(총점=225점); 5=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식 4점 척도로 표시(총점=64점).

* $p<.05$, ** $p<.01$.

표 1-2. 남녀 집단별 측정변인들의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남\여	1	2	3	4	5	M	SD	최소	최대
1. 문제해결중심 대처	-	.17	-.09	.50**	.36**	26.02	4.36	16	33
2.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42**	-	-.07	.03	.10	25.64	3.77	17	33
3. 회피형 대처	-.04	-.07	-	-.31**	-.32**	17.34	3.29	11	26
4. 진로결정자기효능감	.52**	.42**	-.13	-	.54**	149.20	31.79	33	212
5. 진로결정수준	.26	.28*	-.12	.30*	-	58.41	8.4	41	76
M	25.02	24.60	17.82	140.10	57.62				
SD	5.28	4.64	4.08	35.62	9.70				
최소값	11	11	10	8	32				
최대값	33	33	30	207	80				

* $p < .05$, ** $p < .01$.

해보면, 문제해결중심과 사회적 지지추구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r = .26, p < .01$), 회피형 대처는 문제해결중심 대처($r = -.09$) 및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r = -.06$) 중 어느 것보다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대처전략 세 하위요인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보면, 문제해결중심 대처($r = .51, p < .01$)와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r = .18, p < .05$)는 정적 상관을, 회피형 대처($r = -.25, p < .01$)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은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r = .45, p < .01$), 이는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진로결정수준과 관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2가 지지되었다.

대처전략,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Holmbeck(1997)이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대처전략의 세 하위요인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예측 변인인 대처전략의 세 하위요인인 문제해결중심, 회피형,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c)가 유의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예측변인인 대처전략 세 하위요인이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a)와,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b)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a와 b 두 경로는 모두 유의하였으나 예측 변인인 대처전략의 세 하위요인 중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로 c, 즉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론모형인 부분 매개모형은 지지되지 않았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위 매개모형에서 예측변인인 대처전략 세 하위요인과 결과변인이 진로결정수준사이의 경로계수를 0으로 제약할 때(완전 매개모형)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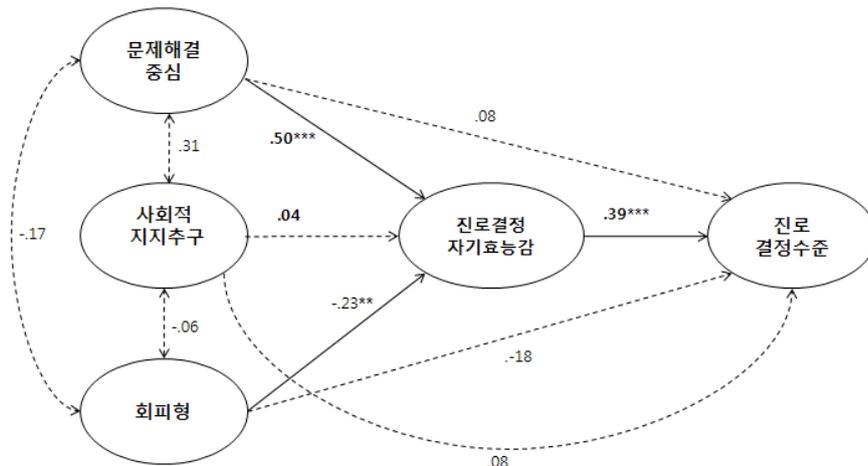


그림 3. 전체집단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매개모형

경로계수는 표준화계수임, ** $p < .01$, *** $p < .001$. 실선은 유의한 경로,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대처전략은 문제해결중심, 사회적 지지추구, 회피형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됨.

제약하지 않을 때(부분 매개모형)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완전 매개모형을 검증했을 때 모형 적합도는 $\chi^2(83)=113.68, p = .014, RMSEA=.047(90\% \text{ 신뢰구간}, CI: .022-.067), CFI=.978, TLI=.972$ 로 나타나 매우 적합하였고, 부분매개모형도 $\chi^2(80)=109.13, p=.017, RMSEA=.046(90\% \text{ CI: } .021-.067), CFI=.979, TLI=.973$ 으로 나타나 매우 적합하였다. 따라서 두 모형 모두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나, 설명량,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해 볼 때 완전 매개모형이 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결과는 대처전략들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대처전략의 세 하위요인 간에 차이가 있었다. 즉, 세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과 회피형 대처전략은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으나, 사회적 지지추구 하위요인에

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수준 간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보이는데 대처전략의 하위 요인에 따라 매개효과의 유의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표준오차를 고려했을 때 완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의 Z공식에 의하면, Z값이 산출된 임계치인 ± 1.96 에 비교하여 $p < .05$ 수준에서 임계치보다 클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¹⁾ 따라서 가설 3은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지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가설모형, 즉 대처전략,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으로 이행

1) $Z=2.268$ (회피형 대처), -3.287 (문제해결중심 대처), -0.496 (사회적 지지추구) $p < .01$.

표 2. 가설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CFI	TLI	RMSEA(90% CI)
모형 1(가설모형)	109.126	80	.017	.979	.973	.046(.021-.067)
모형 2(경쟁모형)	116.058	83	.010	.976	.970	.049(.025-.068)

되는 경로와 경쟁하는 대안모형,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대처전략, 진로결정수준으로 이행 되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비슷하였으나(표 2) 모형 1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지만, 모형 2에서는 대처전략의 세 하위요인 모두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처전략이라는 행동 자체가 직접적으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는 인지적인 매개변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인지진로이론(SCCT)에 기반하여 모형을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여 최종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성차 모형 검증

성별에 따라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모형 및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집단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이 동일한 형태의 모형 구조를 갖는

표 3. 가설모형과 경쟁모형의 경로계수 비교

모형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모형 1 (가설모형)	효능감 ← 회피	-.948**	-.233**	.340
	효능감 ← 사회적지지	.151	.038	.303
	효능감 ← 문제해결	1.654***	.497***	.270
	결정 ← 효능감	.148***	.387***	.038
	결정 ← 회피	-.273	-.176	.143
	결정 ← 사회적지지	.126	.084	.124
	결정 ← 문제해결	.103	.081	.123
모형 2 (경쟁모형)	회피 ← 효능감	-.078***	-.319	.023
	사회적지지 ← 효능감	.054**	.211**	.022
	문제해결 ← 효능감	.166***	.551***	.023
	결정 ← 효능감	.179***	.388***	.047
	결정 ← 회피	-.284	-.152	.174
	결정 ← 사회적지지	.166	.091	.146
	결정 ← 문제해결	.091	.060	.145

p<.01, *p<.001.

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집단별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의 유의성과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모형 적합도는 $\chi^2(170)=220.172$, $p=.006$, CFI=.965, TLI=.957, RMSEA=.042(90% CI: .024-.057)로 나타나, 매우 적합하였다.

모형 내 모수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 집단의 경우(그림 4)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집단의 모형 검증과 마찬가지로 대처전략의 하위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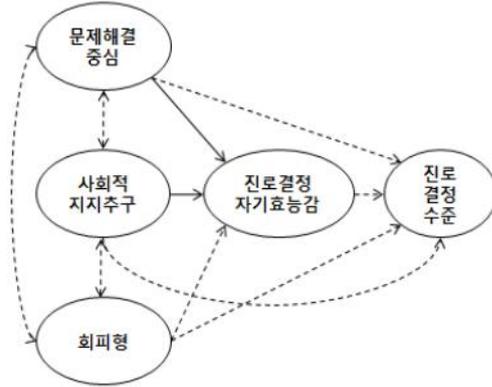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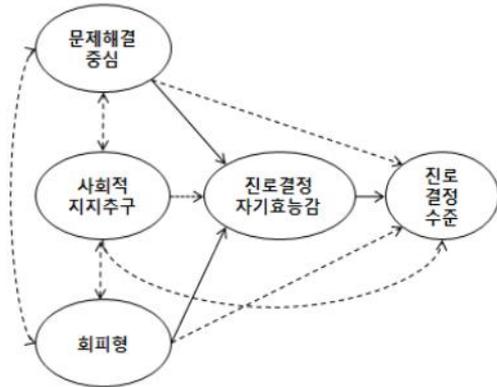


그림 4. 여학생집단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매개모형 그림 5. 남학생집단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매개모형
 ** $p < .01$, *** $p < .001$. 실선은 유의한 경로,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표 4. 남녀 집단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성별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여학생 ($n=118$)	효능감 ← 회피	-1.319**	-.304**	.458
	효능감 ← 사회적지지	-.370	-.090	.381
	효능감 ← 문제해결	1.702***	.493***	.325
	결정 ← 효능감	.162***	.428***	.044
	결정 ← 회피	-.380	-.219	.187
	결정 ← 사회적지지	.092	.060	.146
	결정 ← 문제해결	.159	.122	.143
남학생 ($n=50$)	효능감 ← 회피	-.692	-.211	.424
	효능감 ← 사회적지지	.935*	.277*	.441
	효능감 ← 문제해결	1.307**	.433**	.402
	결정 ← 효능감	.092	.223	.080
	결정 ← 회피	-.57	-.117	.218
	결정 ← 사회적지지	.214	.155	.231
	결정 ← 문제해결	.093	.075	.223

* $p < .05$, ** $p < .01$, *** $p < .001$.

중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과 회피형 대처전략이 진로결정수준 간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 집단의 경우(그림 5), 남녀를 합친 전체모형의 경우와는 달리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측변인인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대처전략의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이는 전체모형에서 나타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가 남학생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차 모형검증을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 따라 매개변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효과가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학년차 모형 검증

학년에 따라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 모형 및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저학년 집단

(1, 2학년)과 고학년(3, 4학년) 집단으로 구분한 뒤 각 집단에 대한 관계 모형 적합도 및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저학년 집단의 모형 적합도는 $\chi^2(170)=232.08, p = .001, CFI .957, TLI=.947, RMSEA=.047(90\% CI: .030-.061)$ 로,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내 모수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전체집단의 모형 검증과 마찬가지로 대처전략의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과 회피형 대처전략이 진로결정수준 간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학년 집단의 경우, 전체 집단 및 저학년 집단과는 달리,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수준 간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7). 분석 결과를 보면 대처전략의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만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과 회피형 대처전략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 이행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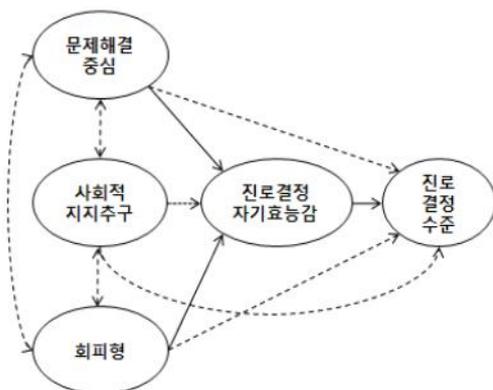


그림 6. 저학년집단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매개모형
실선은 유의한 경로,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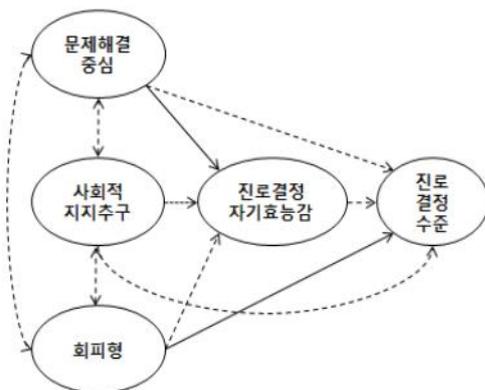


그림 7. 고학년집단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매개모형

표 5. 학년별 대처전략과 진로결정 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학년	경로	경로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고학년 (n=98)	효능감 ← 회피	-.908	-.197	.479
	효능감 ← 사회적지지	.156	.041	.383
	효능감 ← 문제해결	2.061***	.615***	.341
	결정 ← 효능감	.057	.149	.054
	결정 ← 회피	-.465*	-.262*	.222
	결정 ← 사회적지지	.148	.102	.161
	결정 ← 문제해결	.365	.283	.186
저학년 (n=70)	효능감 ← 회피	-1.201**	-.366**	.448
	효능감 ← 사회적지지	-.345	-.083	.522
	효능감 ← 문제해결	1.033*	.305*	.429
	결정 ← 효능감	.257***	.663***	.054
	결정 ← 회피	-.048	-.037	.177
	결정 ← 사회적지지	.134	.084	.195
	결정 ← 문제해결	-.110	-.084	.168

* $p < .05$, ** $p < .01$, *** $p < .001$.

집단과 저학년 집단에서는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고학년 집단의 경우, 대처전략의 하위차원 중 회피형대처전략에서 진로결정수준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5). 이는, 저학년 집단과는 달리 고학년 집단이 회피형 대처전략을 사용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에게 중요한 스트레스 원인 진로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인지진로모형에 기초하여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검증된

매개모형을 바탕으로 성차와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대처전략의 세 하위요인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이 대처전략의 하위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 회피형 대처전략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었지만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진로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Lent와 Hackett(1987)의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결과(이광희, 2008)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

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해결중심 대처와 회피형 대처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박선희, 박현주, 2009)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대처전략 자체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접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여 주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중요한 역할을 부각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개인의 경험 중 수행성과의 달성 여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과거 성공적인 수행경험으로 형성된 자신감이 행동의 실행을 결정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자기효능감을 높여 주어 진로결정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Heppner 등(2002)에서 나타난 결과, 즉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서 문제상황을 회피하여 심리적인 부적응을 낳는 것이 아니라 문제상황을 회피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심리적인 부적응을 유발하는 것 과도 일관되는 결과이다. 나아가 일반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뿐 아니라 진로결정의 문제에도 이와 같은 모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확인 및 확장했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검증된 매개모형을 바탕으로 성별차이를 확인한 결과, 여학생집단은 전체집단과 동일하게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과 회피형 대처전략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

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남학생집단은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과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전략만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어 진로결정수준을 매개하는 효과는 없었다. 이는 학업 우수 남학생 집단에서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남자 대학생 집단은 선행연구와 달리 학업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일반 남자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에 있어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영향이 여학생에 비해 적을 수 있다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진로발달과정에서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추구하는 능력,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능력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데 여학생에 비해 더 중요할 수 있으며, 남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변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남학생 집단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검증된 매개모형을 바탕으로 학년차이를 확인한 결과, 저학년 집단은 전체집단과 동일하게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과 회피형 대처전략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고학년 집단은 문제해결중심 대처전략만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을 뿐, 진로결정수준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저학년보다 진로선택을 현실적으로 지각하는 고학년 집단의 특성

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학년 학생들은 취업시기가 되면 진로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저학년에 비해 개인적인 선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해야 하므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저학년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상담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한 신념, 즉 자기효능감에 의해 결정되며(하동희, 2005), 진로와 관련하여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직접적인 접근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며, 이를 통해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개입 시, 그들이 우선적으로 진로관련 문제 상황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해결방식을 모색하게 함으로써 직접적인 행동접근을 통해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개입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자신을 이해하며 진로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진로준비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개입 시 학년과 성별에 따른 차별적 처치와 조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학생 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전략과 같이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탐색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노력 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여학생과 차

이를 보였다. 따라서 진로상담 시 남학생들은 부모, 선배, 친구 등 진로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조언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지망을 적극 활용하여 세부적인 진로준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직업에 관련되어 있는 멘토에 의한 집중적인 멘토링 교육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여학생 집단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여학생들이 현재의 성공적인 수행경험이나 성취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진로결정에 있어 중요한 인지적 요인이기 때문에 학습을 수행하거나 진로 준비를 하는 현재의 노력에 더 집중하여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아인식을 갖도록 조력해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년차와 관련해서 고학년 집단에게는 효능감이라는 인지적 요인보다 구체화된 진로탐색을 통해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진로의 사회적 목표와 기능, 진로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주는 것이 이들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심리학과 소속의 대학생이었는데 학과의 특성상 여성의 분포가 더 많고 남성의 수가 적어 일반인에 적용하는 데에는 다소 제약이 있다. 특히 남학생의 사례수가 50명에 불과하여 통계적 검증력이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차에 대한 결과는 잠정적으로만 해석해야만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남학생 사례수를 확보하여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재한 대학교가 서울 및 지방에 위치하여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셋째, 표집의 편의를 위해 연구 참여

자를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 포함하였고, 예상되는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가상 시나리오를 읽게 하여 참여자 모두에게 진로 갈등 상황을 떠올리게 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제시된 상황에 대한 몰입의 정도가 개인마다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시나리오에 대한 몰입도를 평정하는 문항을 추가하여 연구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취업을 앞둔 시점에서 진로선택에 대해 깊이 고민할 가능성이 많은 고학년 혹은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이 진로결정 장면에서 예측변인으로 인지적 개념들을 주로 연구한 것과 달리 행동적 요인인 대처전략을 예측변인으로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인지적 개념들에 치우쳐 있던 연구들을 보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는 문제중심적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그러한 행동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높은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대처전략과 진로결정수준 간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상관관계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변인들의 영향력과 경로를 확인하였고, 대처전략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강희순 (2010).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스트레스 대처전략, 진로준비 행동 간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3), 141-155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민정, 김봉환 (2007). 불안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1), 13-25.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선남, 정현욱 (2005). 남녀대학생의 진로 및 직업의식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8(2), 267-284.

김영경 (2008). 대학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91-1210.

김은진, 천성문 (2001). 부모에 대한 갈등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자아 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동서정신과학, 4(1), 147-162.

김정은 (2007). 남녀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의사결정.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희수 (2000). 고등학생의 자기 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의 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수 (2005).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3(3), 63-88.
- 문양호, 김완일 (2006). 사관생도와 대학생의 스트레스 분석 및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그리고 지각된 스트레스의 관계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485-501.
- 박경, 임경화 (1998). 서울여대생의 진로계획 및 취업준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11, 5-42.
- 박선희, 박현주 (200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1), 67-81.
- 박수길 (2001).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정희, 이은희 (2008).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불안, 우울 및 강박증과 진로결정수준: 자기 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103-123.
- 변은주 (1999). 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대처방식이 진로결정수준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지숙 (2006).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진로 미결정 이유, 진로 성숙도와 대학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1-10.
- 신현숙 (2005). 중학교 체육교사의 지도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체육수업 만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진, 김창대 (2002). 스트레스 대처전략 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51-466.
- 유나현, 이기학 (2009).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10(4), 2241-2255.
-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2005).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진로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식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경, 이혜성 (2002). 진로결정 효능감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235-257.
- 이제경 (1997).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발달의 대학전공분야별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학주, 이기학 (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임연, 이지연, 윤희한 (2004). 이공계 대학생의 전공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 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 효능감의 매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37-851.
- 조아미 (2000).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성숙성의 결정요인으로서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교육학연구*, 38(4), 43-62.
- 주현숙, 방희정 (2006). 청소년의 관계적-상호 의존적 자아해석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84-295.
- 탁진국 한덕웅 (1993). 스트레스와 대처: 생활 사건, 자기 효능성 및 대처 양식에 따른 부적응 효과의 인과적 모형 검증,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39-461.
- 하동희 (2005).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스트레스대처방식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mirkhan, J. H. (1990).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1066-1075.
- Argyropoulou, E. P., Sidiropoulou-Dimakakoo, D., & Besevegis. E. G. (2007). Generalized self-efficacy, coping, career indecision, and vocational choices of senior high school students in Greece: Implications for career guidance practitioner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4), 316-337.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s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Biggam, F. H., Power, K. G., & Macdonald, R. R. (1997). Coping with the occupational stressors of police work: A study of Scottish officers. *Stress Medicine*, 13(2), 109-115.
- Brissette, I., Scheier, M. F., & Carver, C. S. (2002). The role of optimism in social network development, cop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a life transition.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82(1), 102-111.
- Chang, Edward & Strunk, Daniel R. (1999). Dysphoria: Relations to appraisals, coping,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1), 99-108.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 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5(3), 229-244.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150-170.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Harre, R., & Lamb, R. (1983). *The encyclopedic dictionary of psychology*.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Heppner, P. P., Pretorious, T. B., Wei, M., Lee, D-G., & Wang, Y-W. (2002). Examining the generalizability of problem-solving appraisal in black South Af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4), 484-498.
- Holmbeck, G. N. (1997). Toward Terminological, conceptual, and statistical clarity in the study of mediators and moderators: Examples form

- the child-clinical and pediatric psychology literatur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4), 599-610.
- Lazarus, R. S., & Cohen, J. B. (1977). Environmental stress. In: Altman, I. & Wohlwill, J. F. (Eds.)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 Current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Plenum Press.
- Lazarus, R. S., 김정희 역 (2001).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서울: 대광문화사.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ent W. R & Hackett. G. (1987). Career self-efficacy: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3), 347-382.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 Osipow, S. H., Carney, C., Winer, J. L., Yanico, B., & Koschier, M. (1976). *The Career Decision Scale*,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ogers, M. E., Creed, P. A., & Glendon, A. I. (2008). The role of personality in adolescent career planning and explor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1). 132-142.
- Slaney, R. B. (1988). The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In W. B. Walsh & S. H. Osipow(Eds.), *Career decision making*, (pp.33-76). Hillsdale, NJ: Erlbaum.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Sobel, M. E. (1986). Some new results on indirect effects and their standard error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s. *Social Methodology*, 16(1), 159-186.
- Tolbert, E. L. (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Tracey, T. J. G. (2010). RIASEC interest and confidence cutoff scores: Implications for career counsel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6(2), 265-276.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56-75). Newbury Park, CA: Sage.
- Winer, J. L. (1992). The early history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4), 369-375.

원고접수일 : 2011. 8. 3

수정원고접수일 : 2011. 9. 22

게재결정일 : 2011. 11. 24

The rol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improving the quality of career decision making

Yee Jee Kim Shin Young Jeung Ji Ae Kim Ji Yun Kim Dong-gwi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rol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coping strategies(problem solving, social support seeking & and avoidance) and career decision level. Significant mediational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were found in the paths from problem solving and avoidance strategies to career decision level, but not for social support seeking strategy when the entire sample was of interest. For male college students, problem solving and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strategie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increas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but no mediating effect of self efficacy was found. For junior and senior college students, only problem solving strategy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and no mediating effect of self efficacy was shown.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to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coping strategies(problem solving, social support seeking, & avoida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mediating effects, career decision level

부록 1. 진로결정 갈등상황 제시문

이제 어떠한 상황을 가상하여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아래의 상황이 자신의 상황이라 생각하며 평소의 자신이라면 아래의 상황에 어떻게 행동했을 지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학과 4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000이다. 나는 사학을 전공하였지만 정말 하고 싶은 직업은 기업의 인사팀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포부를 가지고 기업에 이력서를 낼 때에도 경영지원 인사팀, 사원교육부서에 지원하였다. 8월 초반에 삼*그룹 채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삼*, S*, 두*, G* 등 대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30대 기업 중 16군데에 지원하였지만, 모두 서류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학과 동기들 중 출판사나 일반 영업직을 지원한 친구들은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면접까지 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지원하는 분야가 전공과 달라서인지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것 같다.

비록 전공은 다르지만, 학부시절 인사관리, 조직심리학, 경영학 수업을 많이 수강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자기소개서에도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원하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전공에 맞는 부서로 지원을 해야 할지, 원하는 부서를 계속해서 지원해야할지 지금 현재 고민이 많다.